

## ♣ 설교자료 ♣

\* 성탄절 2제

\* 송구영신 3제

박 희 천

(서울, 내수동 교회 담임 목사)

### 1 예수님의 일(행 10:38)

성탄절을 즈음하여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죄인을 구원하신 구속의 사업이나 이 구속 사업 밖에도:

#### 1. 착한 일(행 10:38)

비록 착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진리면에 비추어 보면 옳지 않은 일도 있거니와(마 16:21~23)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착한 일인 동시에,

#### 2. 옳은 일(눅 23:41)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증거해 보라고 자신 있게 항의할 수 있었다(요 18:23)

#### 3.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요 4:34, 5:30, 6:38, 14:31)

그러기에 겐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셨다(마 26:39).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 4.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요 8:29)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되 한두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자동적으로,

#### 5. 영광스러운 일(눅 13:17, 요 17:4)

영광스러운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두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다.

▲ 결론: 성탄절을 즈음하여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자.

## 2 예수와 자기 백성

‘예수와 백성’이라 함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을 가리킨다. 신약성경에 예수의 백성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마 1:21, 행 15:14, 18:10, 롬 9:24~26, 딤후 2:14, 벧전 2:9,10, 계 18:4)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과 자기 백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1. 오직 자기 백성의 죄만을 속하기 위해 탄생하셨다

예수님께서 오늘 탄생하신 목적은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구원하시려고 탄생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 백성의 죄만을 속하시려고 탄생하셨다(마 1:21).

### 2. 자기 사람들(즉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 13:1)

끝까지라 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만 아니라(시 48:14),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이다(딤후 4:18).

### 3. 오직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 간구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롬 8:34), 그 간구의 힘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되는데(히 7:25), 그 간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자기 백성들만을 위하여 하신다(요 17:9).

▲ 결론: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택함 받게 된 은혜를 아울러 감사 드리자.

## 3 처음과 나중(엡 6:24)

성경은 처음과 나중에 대하여 3가지를 말씀하였는데:

1. 처음과 나중이 같은 자

처음의 아름다움이 나중까지 변함 없이 지속된 자, 즉 엡 6:24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자와 같은 경우이다. 갈렙은 45년 동안 건강도 불변했거니와(수 14:10) 민 14:6~8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과(수 14:12)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이(민 14:24) 불변하여(수 14:14) 처음과 나중이 똑같았다.

2.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자

사울이 그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믿음이 있었으나(히 11:29) 나중에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히 3:19, 4:2, 유 5). 훌륭한 조상 모세의 손자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나중을 맺었다(삿 18:30).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됐고(갈 3:3),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나중에 와서는 잃어버리고 말았다(계 2:4~5).

3.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자

룻 3:10, 계 2:19, 전 7:8, 살후 1:3, 욥 42:12.

▲ 결론: 지금은 '79년도 마지막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는 이 해를 어떻게 마치려는가?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자로? 아니면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자로?...

4 세월은 ... (욥 7:6)

문학에서는 세월이 화살 같이 빠르다고 표현하였으나 성경은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사실을 5가지로 비유했다.

1. 베틀의 북(욥 7:6)

2. 체부(욥 9:25)

소식을 전하는 체부는 빠르다. 삼하 18:19~23에서 다윗에게 승전의 소식을 전하는 두 사람도 달려갔다. 체부를 성경은 보발군이라고도 하

였다(렘 51:31)

3. 빠른 배(욘 9:26)
4. 움킬 것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욘 9:26)
5. 신속히 날아가다(시 90:10)

세월이 빨리 지나가되 긴 세월이면 또 몰라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짧은 세월을(약 4:14) 빨리 지나가니 얼마나 더 빠르겠는가. 연말이 되니 세월이 빠르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벌써 한 해가 저물었다. 베틀의 북, 채부, 빠른 배, 독수리 같이 빨리 날아가는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화살 같이 빨리 지나가는 한 평생을 그저 어물어물 하면서 다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나라를 위하여 값있는 일을 남겨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고전 15:58에 주의 일은 헛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정신 차려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헛되지 않는 주의 일을 많이 남겨 놓기를 힘쓰자.

## 5]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의 집은 마치 저녁에 서산에 떨어지는 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고, 안 죽으려고 쫓기어 다니던 다윗은 아침에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했었으니 이 거짓말 같은 사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 1. 사울의 집에는 죄가 있었고, 다윗의 집에는 죄가 없었다

사울의 집에 죄라 함은 2 가지인데,

- (1) 시기심이 약동하여(삼상 18:7~9)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던 죄요,
- (2) 정복한 제사장 85인 및 그 가족들을 죽인(삼상 22:18~19)죄이다.

어린이들이 철없이 농담삼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놀리다가도 42명이 곶에 찢겨 죽었거든(왕하 2:23~25) 하물며 사울의 집이리요.

잠 3:33, 시 7:15~16, 잠 26:27에 비추어 볼 때 죄 지은 사울

의 집이 무사했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을 사랑하였고(삼상 24:4~7, 26:8~11) 사울이 죽은 후에도 슬퍼하였고(삼상 1:11), 사울의 장례식을 치러 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였다(삼하 2:4~7).

2.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나(삼상 15장, 특히 22절), 다윗의 집은 순종하였다(삼상 23:24, 30:8, 삼하 2:1, 5:23).
3. 사울의 집에서는 성령이 떠났으나(삼상 10:6, 10, 11:6, 16:14), 다윗의 집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다(삼상 16:13, 참고, 시 51:11).
4. 사울의 집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나(삼상 15:23, 26, 18:12, 28:15~16),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삼상 18:28, 삼하 5:10).

▲ 결론 : 송구 영신의 순간을 맞이하여 나와 내 집과 우리 교회는 어느 집에 속한 것 같은가? 만일에 사울의 집에 속했다면 이 한 해 동안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으나, 다행히 다윗의 집에 속했다면 가고 갈수록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살피니 내가 아직 사울의 집에 속한 것 같다고 하여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다윗이 즉위한 후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자가 있어 다윗의 집으로 이사하여 복받기를 원할 때 (삼하 9:1) 사울의 집에 속했던 므비보셋이 다윗의 누리는 복을 같이 누렸듯이 내가 만일 어제까지 사울의 집에 속해 있었다 하더라도 새해 첫날부터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이사하면 다윗의 집이 누리는 복을 나도 같이 누릴 수 있으니 사울의 집에서 벗어나 다윗의 집으로 옮기자.